

대학생의 통제위치가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이길환* · 서정민** · 이일우*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대학원

The Influence of student career decision-making on the type of locus of control

Gil-Hwan Lee* · Jung-Min Seo** · Il-Woo Lee*

*School of Business, CHUNGBUK University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Industry

Abstract

In this study, college students, the nature of the locus of control type determines that they affect about career decision making. For this purpose I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udy to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research.

This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model based on the hypothesis set and set the hypothesis verified result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able to elicit. Internals types influence that they showed a positive impact in reasonable career decision making type. Externals types influence that they showed a positive impact in intuitive, dependent career decision making type.

The summarized facts, as above, may b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at may be advised during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and will be data which will propose a new direc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also.

Keywords : Locus of control, Internals, Externals, Career, The Type of Career Decision Making

1. 서론

IMF 이후 우리나라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더 진로 선택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교를 떠나 새로운 사회에 나아가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진로 선택은 당연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생에게 있어서 졸업 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는 본인의 자아실현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로결정은 개인발달에 중대한 요인임에 틀림없다(박수길, 이영희, 2002).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의 여러 요인 중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의 발견, 그리고 적절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워 간다면, 취업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자질과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과 사회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교육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학 입학 전까지는 지나치게 통제되고 수동적인 입시위주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상황과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 교신저자: 이길환, 충북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M · P : 010-4157-9447, E-mail : khyibsh@nate.com

2012년 6월 27일 접수; 2012년 9월 4일 수정본 접수; 2012년 9월 14일 게재확정

이 시기 동안 대학생들은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응함으로써, 유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달해가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더불어 이 동안에 대학생들은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며 생활전반에서 독립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직업에 대한 준비와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산업기술과 지식, 과학의 발달로 각각의 사회구성원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직업세계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습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교육 내지 상담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개인이 결정하는 진로의 방향은 개인이 하는 일의 종류, 개인이 만나는 사람, 개인이 보내는 시간에 경향을 미침으로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Tolbert, 1980).

개인의 진로발달에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상황적 변인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변인이나 특성으로 개인적 진로결정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이 좀 더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실제로 개인은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지닌 개인을 도와주기 위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향자, 1992). 진로를 결정한 학생과 결정하지 않은 학생간의 차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그 원인을 개인적 특성들과 관련시켜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것이다.

초기에 이 입장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 접근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진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는 주로 고전적 의사결정모형을 기초로 한 연구들에서 제기되어 왔다(Gelatt, 1962; Krumboltz & Hamel, 1977/ Krumboltz, J. D. & Hamel, D. A. M., & Jones, G. B, 1977). 이 관점은 인간이 갖는 합리성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상적인 의사결정자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하는 선택에 이르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사용하는 과학자로서 기술한다(Phillips & Paziienza, 1998). 따라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과 선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기술을 훈련시키는 상담개입이 강조되었다(Krumboltz & Hamel, 1977).

기존의 많은 연구들 중에서 Harren(1979)의 진로 의사결정모형은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과정과 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징과 상황적 조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의 모형은 전공과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과 만족의 정도는 진로결정과정의 진

행수준과 관계있음을 가정하면서,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인 틀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로상담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그 활용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다(Daniels, 198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격은 타인과 구별되는 내재된 성질이며 고정적인 특성의 총체를 말하는데, 이러한 대학생의 성격유형 중 통제위치가 초점을 두고 통제위치가 과연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성격에 관한 고찰

성격은 심리학자들에게 있어 오랜 동안에 걸쳐 사람들에게 있어 특정한 측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해 왔다. 따라서 성격은 인간의 발달, 정서, 인지, 학습 및 사회적 관계 등의 인접 분야와 중첩되어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성격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으나, 형식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간의 정의도 거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격(personality)의 어원은 고대 로마의 배우들이 연극무대에서 분장을 하지 않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가면인 페르소나(persona)를 착용했는데, 이것을 보고 관객은 배우의 태도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Burnham, 1968). 이 페르소나가 성격(personality)의 어원으로 오늘날 우리가 상용하는 성격의 개념은 18세기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Sampson (1989)은 성격의 개념이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성격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초기 성격의 개념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한 개인이 취하게 되는 피상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뜻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적 이미지란 개개인이 공적 성격(public personality)이 삶의 역할에 적응하려는 데 두리 내에서 쓰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성격을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 즉 개인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많은 학자들이 성격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개념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의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서 각 개인의 적응을 특정 짓는 사고와 정서를 포함한 독특한 행동양식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2.2 통제 위치에 관한 고찰

2.2.1 통제위치의 개념

인간은 인간이 자신을 인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지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강화(reinforcement), 보상(reward), 만족(gratification)이 행위와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Rotter, 1966). 이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상에 의해서 강화되는 행위는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반복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행위는 제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나 보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이나 강화로 여겨지는 사상(events)도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지각되고 반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Rotter(1966)의 주장이다. 즉 개인의 보상을 그 자신의 행위나 속성에 따른 것으로 지각하느냐 아니면 그 보상은 외부에 있는 힘에 의해 통제되며 그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느냐는 이런 각 개인의 반응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특정행위(specific behavior)에 대한 강화나 보상의 효과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 자신의 행위와 보상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각의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지각은 사람마다 상이하며 때때로 똑같은 사람에 있어서도 특정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변한다고 한다(Nassi & Ambamowitz, 1980).

어떤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를 자신의 행동에 뒤따라 온 것이긴 하나 전적으로 그의 행동에 딸린 것이 아니라고 지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행운, 재수, 운명 때문에 왔다는가, 힘이 센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가 또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힘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생한 사건을 어떤 개인이 이와 같이 해석할 때 이런 생각을 외적통제에 대한 신념(belief in external control)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사건을 자기의 행동에 달렸다는가 자신의 고정적 특성에 달렸다고 보면 이를 내적 통제에 대한 신념(belief in internal control)이라고 부른다. Rotter(1966)는 이런 개인의 신념체계를 통제위치(locus of control)라는 용어

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얻는 결과인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행위와 능력 및 노력 같은 내적요인에 귀인 시키는 정도이며, 따라서 자신의 삶이나 미래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통제를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각 개인의 믿음의 정도이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각각 개인들은 자신이 부딪치는 각 상황의 경과가 내재적으로 통제되느냐 아니면 외재적으로 통제되느냐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generalized expectancy)를 형성하게 되는데 각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르므로 이는 인간의 중요한 퍼스널리티 변수의 하나가 된다고 한다(Joe, 1971).

이러한 통제위치상의 한 극단은 내적 통제개념으로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상관없이 어떤 강화나 보상이 자신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이며, 따라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것이며, 다른 한 극단은 외적 통제신념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가 자신의 행위나 노력과는 무관하여 자신의 통제 밖에 있으며, 운·기회, 강력한 다른 사람 같은 외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이다(Lefcourt, 1966). 그리하여 이런 내·외적 통제선상의 어디에 위치한다고 믿느냐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외재론자(Externals)와 내재론자(Internals)로 구분할 수 있다(Hammer & Organ, 1978).

내재론자들은 상대적으로 내재적 통제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어떤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나 노력의 결정성을 믿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반면 외재론자들은 상대적으로 외재적 통제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행위·능력·노력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자신은 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자신의 내적 요인과는 무관한 기회나 운 또는 강력한 타인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으며, 개인의 행위의 결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위나 노력에 별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통제위치와 여러 관련행위에 대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내재론자나 외재론자나에 따라 여러 환경 및 상황에서 나타내는 행위가 각기 다르며, 여타 성격 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통제위치와 관련된 연구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경영학 측면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Roth & Bootzin, 1974).

내·외적 통제신념은 특정적 기대(specific expectancy)와 일반화된 기대(generalized expectancy)로 구분될 수 있다. 특정적 기대란 상황의 통제위치(situational locus do control)라고도 하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성과가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느냐 아니면 운이나

기회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상황적 특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특정적 기대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내재적인 신념은 그 상황에 대해 자신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운이나 기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화된 기대란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상황에 대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대로서 이는 각 개인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퍼스널리티를 형성한다. 이처럼 일반화된 기대와 특정화된 기대를 구별하는 것은 독단적일지도 모르나 이렇게 함으로써 행동예측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rull & Karabenick, 1975).

일반화된 기대와 특정적 기대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사실상 일반화된 기대와 특정적 기대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작용을 한다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Brice & Sassenrath, 1978).

Rotter & Mulry(1965)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위치(일반화된 기대)와 과업의 형태(특정적 기대)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과업을 더 잘할 수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내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과업환경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기술조건(skill condition)하의 과업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성과가 높은 반면, 외재적인 사람들은 운에 의해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조건의 업무에 더 오랜 시간을 투입하여 몰입하며 성과가 더 높았다(Rotter & Mulry, 1965). 또한 내재론자들은 외재론자보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성과에 대해 자신이 더 많은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Julian & Katz, 1968). 그리고 Srull과 Karabenick(1975)에 의하면 내재론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는 과업의 성과를 더 높일 평가하나 외재론자들은 기회나 운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2.2.2 통제위치의 다차원성

통제위치 개념의 다차원성이라는데 대해서는 여러 학자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나 구체적인 견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Collins(1974)는 세상의 복잡성에 관한 신념, 세상의 공정성에 관한 신념, 세상의 추측가능성에 관한 신념, 정치제도의 민감성에 관한 신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첫째, 세상의 난이성에 관한 신념(belief in a difficult-easy world)은 자신의 환경이나 세상이 어렵고 복잡하며 해결 불가능한가 아니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여 자신의 힘으로 해결가능한가에 대한 믿음이다.

둘째, 세상의 공정성에 관한 신념(belief in a just-unjust world)은 자신의 환경이나 세상이 어렵고 복잡하며 해결 불가능한가 아니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여 자신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가에 대한 믿음이다.

셋째, 세상의 추측가능성에 관한 신념(belief in a predictable-unpredictable world)은 세상은 운이나 기회 등에 의해서 조정되므로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가 아니면 운이나 기회의 작용은 미소하므로 세상이 예측가능한 것으로 믿느냐에 관한 것이다.

넷째, 정치제도의 민감성에 관한 신념은 정치제도에 대해서 일반 개인이나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제도를 수정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신념이다.

Levenson(1976)의 견해는 통제 위치와 여러 관련행위에 관한 연구결과 간의 불일치가 척도의 불완전성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 타당한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외재성(externality)을 두 차원으로 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외재지향성은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신념과 강력한 타인에 의해 지배된다는 신념의 둘로 양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는 세상이 운이나 기회에 의해 지배되어 무질서하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정돈되어 있지만 다남 강력한 타인의 지배하에 있다고 믿는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Levenson(1976)은 이 차원에 따라 자신의 새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모든 항목이 각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느낌의 정도를 측정하고 자신이 느끼기에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았다.

2.2.3 통제위치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통제위치 대한 신념은 시간이나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Andrisani & Nestel, 1976). 내·외적인 통제신념은 각 개인의 작업경험이나 사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Doherty와 Baldwin(1985)은 78년에 걸쳐 종단연구를 한 결과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 같은 구조적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여기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여성은 급격히 외재적 태도가 늘어난 반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들은 내재적 성향이

조금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Pandy와 Ram(1978)의 연구에 의하면 강화나 보상이 각자의 행위나 성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경조건을 부여하였더니 각자의 내재적 성향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경험은 외적통제 신념을 증가시키고 이는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Anderson(1977)의 연구에 의하면 통제 위치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대처 행위의 선택을 통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성과는 다시 피드백 작용을 하여 통제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통제 위치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꾸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내재적 신념을 개발하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작업 경험과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3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고찰

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의사결정을 진로발달에 적용한 것이 진로 의사결정이다. 진로 의사결정 모형은 진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연구자들이 그들의 모형에서 강조하는 요인이나 과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다(고향자, 1992). 진로 의사결정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존재임을 가정하며 그 개인은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자신의 기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기대된다(Payne, 1982). 이와 같은 가정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모형, 확률적 통계모형, 복잡한 정보처리 모형, 컴퓨터 의사결정 모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Miller, 1974).

진로 의사결정 모형의 발달은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Jepsen & Dilly, 1974 : Michell & Krumboltz, 1984).

그 하나는 규범적 진로 의사결정 모형(normative decision making model)으로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즉, 진로결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일련의 규칙을 개발하는 접근이다. 이 모형은 인간이 갖는 합리성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상적인 의사결정자를 정보를 탐색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하는 선택에 이르기 위해 그 정보를 사용하는 과학자로서 기술한다(Phillips & Paziienza, 1988).

또 하나의 접근은 기술적 의사결정 모형(prescriptive decision making model)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업결정을 내리는 방식 즉, 실제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Tiedeman과 O'Hara (1963), Harren(1979)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Tiedeman과 O'Hara(1963) 이론의 주된 공헌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서 자아인식의 증가를 강조했으며, 또한 진로결정이 개인의 전체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고 개인의 독특성과 직업세계의 독특성을 결합시키는 체계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강조한 점이다(Zunker, 1980).

Janis와 Mann(1977)에 의하면 의사결정유형은 개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rroba(1978)는 “특정한 의사결정에 접근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고, Harren(1979)은 “의사결정 과제를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장적 유형, 또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Dinklage(1968)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학생들의 교육, 직업, 개인적 영역에서 학생들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가에 대하여 면접을 한 후, 그 자료에 기초하여 계획형, 직관형, 순응형, 운명론형, 충동형, 지연형, 번민형, 마비형의 8가지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였다.

Dinklage(1968)는 8가지 유형 가운데 계획적 유형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직관적 유형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그 외의 다른 유형들은 비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Cook & Harren, 1979). 이와 같이 Dinklage(1968)의 분석은 분류된 의사결정행동이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주장을 지지해 주었으며, 따라서 특성개념의 중요성을 제시해 주고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자극시켰다(Phillips & Paziienza, 1988). Arroba(1977)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의사결정유형을 논리형, 망설이는 형, 생각 없이 결정하는 형, 직관형, 감정형, 순응형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Harren(1979)은 Dinklage(1968)가 분류한 의사결정유형을 재분류하였는데,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 또는 정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에 기초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 유형은 확장된 시간 조망 내에서 연속적인 결정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논리

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진다. 둘째, 직관적 유형은 합리적 유형과 같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정보탐색행동이나 대안들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과정도 거의 갖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상상을 주로 사용하고 현재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서적 자각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선택에 대한 확신은 비교적 빨리 내려지고 그 결정의 적절성은 내적으로 느낄 뿐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셋째, 의존적 유형은 합리적, 직관적 유형과는 다르게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수동적이며 순종적이고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의사결정상황이 여러 가지로 제한된다고 지각한다. 이들 의사결정유형은 Harren(1979)의 Part A 의사결정유형검사 (ACDM- Decision-Making Style)에서 측정된다.

최근에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의사결정유형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로결정에서 의사결정유형의 역할을 확인하려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Harren(1979)은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 가운데 합리적 유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이 적극적인 진로계획과 정보탐색(Jepsen & Dilly, 1974), 좀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 전공선택과 직업선택, 진로 의사결정 과제에서 좀 더 나은 진전(Harren, 1979)과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의 효과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한 연구는 Harren et.al(1978)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Harren(1979)이 주장한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합리적 유형은 자료나 정보를 현실과 관계에 중점을 두어 결정하는 유형이고 직관적 유형은 자료나 정보를 즉흥적인 느낌과 감정적인 자아인식에 의해 결정하는 유형이다. 의존적 유형은 진로결정에 대한 책임감의 능력이나 적극성이 결여된 입장에서 선행결정이나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참조하여 결정하는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4 성격유형과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Harren(1979)의 이론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과정, 개인적인 특징, 당면한 발달과업, 그리고 의사결정상황을 고려하한 것으로써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개입에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인지적 진로이론가인 Lent, Brown, Hackett(1996) 등은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흥미, 능력, 욕구 등의 관계를 진로선택과 개인개발의 결정요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일의 능력과 성공을 가져오려면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흥미나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인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인지적 요인이 일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면 정의적 요인은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 일에 대한 보람, 즐거움, 행복감 등을 가져다주는 즉, 일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Gordon(1981)은 진로결정요인들을 흥미, 가치, 능력, 욕구, 자아개념, 성숙도, 동기, 에너지 수준, 대학수준, 의존성, 독단성, 불안, 사회경제적 수준, 고등학교 학급 크기, 소모-보유, 중요 타인들의 영향, 성별, 사회적 도덕적 태도, 부모들의 수입, 고등학교 성적, 과외활동, 일의 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생애 목표·포부, 대학성적, 성취검사 점수, 회피행동, 직업정보의 결여, 의사결정의 기술·패턴·유형 등으로 나열하였다. 정채기(1991)는 진로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을 들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그 결정의 수준을 높게 나타냈다. 특히, 자아개념의 하위요인들 중 성격적, 도덕적, 학문적 자아가 정적(합리적 유형), 부정(직관적·의존적 유형)인 높은 예언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로결정의 유형에 대해서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들 중 목표지향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주장과 자기수용이 그 순으로 정적·부정의 높은 예언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 통제성이 외적 통제성에 비해 진로결정의 유형에 있어서 더 합리적이며 그 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환(1997)과 김계현(1995) 등은 능력, 불안, 흥미, 의사결정양식 및 기타 성격변인 등을 들고 있다.

진로결정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고향자, 1992; 이재창, 1986; 정기, 1991) 대부분은 인지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져왔을 뿐 행동적인 측면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김봉환(1997), 이제경(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및 그 결정된 바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행동차원을 포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점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구분야에서는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의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경향은 고전적 의사결정이론에 기초한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연구들과 진로결정을 일련의 발달단계의 견지에서 기술하는 발달적 접근, 그리고 진로결정에 개인차를 확인하고 구별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Chartrand & Camp, 1991).

또한 진로 연구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내외통제성, 진로의식성숙도, 진로의사결정 유형, 사회적 지지 등의 다양한 변인과 관련된 개별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진로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로는 신순란(1999), 유지선(2004), 이상희(2005), 김성남(2005) 등이 있다. 김성남(2005)은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 및 사회적 지지의 정적 관계를 밝혀내었고, 이상희(2005)는 진로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진로장애와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다루는 것에 모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성격 유형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그 범위가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동일한 주제에 대한 반복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바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개인들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성격유형 중 통제위치가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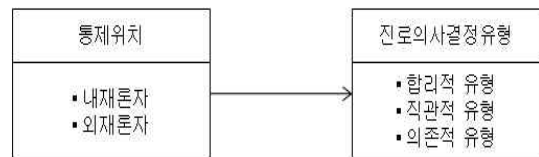
본 연구는 대학생의 통제위치라는 성격유형이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심리적 요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통제위치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을 다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의 당면한 하나의 현실이자 진로 행동의 전제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개인적 차원

에서 개인의 행동을 매개하는 요인들을 통해 개인의 삶에 작용하게 된다. 개인들은 이러한 성격이라는 변수를 통해 유의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개인들에 있어 행위자의 심리적 차원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재해석되며 사회적 행위의 유형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고 있다.



<Figure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Greenhaus & Sklarew(1981)는 내적 통제성을 지닌 학생들이 정보탐색 등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경(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이 가장 내적 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rren(1979)은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Dinklage(1968)가 분류한 의사결정 유형을 수정하여 합리적 유형(계획적)과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을 할 때 자아나 상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이다.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자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사려 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합리적 유형의 특징은 의사결정 시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결정을 예견하며 논리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을 인식한다는 데 있다. 직관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 시 자아나 상황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이다. 직관적 유형은 현재의 감정을 중시하고 결정을 예견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환상을 이용한다. 직관적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 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환상(fantasy)이나 감정 및 상상력을 이용한다. 직관적 의사결정자도 합리적 의사결정자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내린 의사결정에 책임을 진다.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 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외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유형이다. 의존적인 의사결정자는 타인의 기대와 요구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유형의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한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동조적이며, 사회적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제한되고 한정적인 것으로 지각한다. 이러한 유형의 의사결정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의사결정과 관련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반하여 충족감이나 개인적인 만족감을 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를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H 1. 대학생의 통제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보일 것이다.
- H 1-1. 대학생의 통제위치가 내재적일수록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보일 것이다.
- H 1-2. 대학생의 통제위치가 외재적일수록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보일 것이다.
- H 1-3. 대학생의 통제위치가 외재적일수록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을보일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내재론자

내재론자(internal locus of control)는 자신을 자율적인 인간으로 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성격의 소유자를 말한다.

2)외재론자

외재론자(external of control)는 자기의 운명과 삶의 결과는 외부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자신의 통제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행운이나 타인 또는 조직과 같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성격의 소유자를 말한다.

3)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할 필요를 느끼며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자신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준비한다.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은 세밀하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을 의미한다.

4)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합리적 유형처럼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정보를 찾으려는 행동, 논리적 연결이 부족한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현재의 느낌과 감정적인 자기인식에

관심을 가지며 환상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또한 이 유형은 합리적 유형보다 덜 효과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합리적, 직관적 유형과는 달리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자기 밖의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특징을 보이는 유형이다. 기대와 권위, 동료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인정을 필요로 하는 유형이다. 또한 주어진 환경을 제약으로 받아들이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다. 궁극적으로 이 유형은 개인의 만족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온다(이현정, 1999).

3.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격유형 중 통제위치에 대한 측정을 위해 Levenson(1981)에 의해 개발된 것을 홍경옥(1995)이 번역하여 사용한 통제위치에 대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rren(1984)이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 ACDM)라는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이 후에 Buck와 Daniels(1985)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ACDM은 합리적 유형(rational style), 직관적 유형(intuitive style), 의존적 유형(dependent style) 등으로 진로결정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개발한 진로결정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유형검사를 고향자(1992)가 번역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의 통제위치 성격유형과 진로의사결정 유형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 변수와 각 항목의 추출된 출처는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Table 1> 설문항목의 출처

측정 변수		출처
대학생의 통제위치	내재론자	Levenson(1981), 홍경옥(1995)
	외재론자	
진로의사결정 유형	합리적 유형	Harren(1984) 고향자(1992)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으로 설정된 변수별 설문 항목은 <Table 2>와 같이 설계하여 연구에 임하였다.

<Table 2> 설문지의 구성항목

측 정 변 수		출 처
통제위치	내재론자	I -2,4,7,8,9
	외재론자	I -1,3,5,6
진로의사결정 유형	합리적 유형	II -1,3,5,10,13,15,17,22,25,27
	직관적 유형	II -2,7,8,11,16,19,21,23,28,30
	의존적 유형	II -4,6,9,12,14,18,20,24,26,29

3.5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3.5.1 표본의 선정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대학생의 통제위치 성격유형이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에 앞서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에게 협조와 설문지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 작업에 임하였다. 그러나 대상의 접근 가능성이나 시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무선표집(random sampling)이나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과 같은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편의표본(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의 취지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연구의 표본이 된 대학생들 응답자 개인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할 것이며,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에게 약속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본은 무작위 추출을 하여 총 200부를 회수하여 연구에 임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는 대학생의 통제위치 성격유형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설정된 가설검증을 중심으로, 구축된 설문에 의한 자기기입(self-reporting)방식의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충청북도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2008년 3월 2일부터 3월25일까지 직접 방문에 의해 실시하였다.

3.5.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가설의 검증 및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PSS 14.0을 이용하여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항목들 간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유형이 종속변수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조사에 참여한 표본의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에 참여한 남자는 71명(52.5%)이고, 여자는 64명(47.4%)이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초반이 65명(48.1%), 20대 중반이 50명(37.0%), 20대 후반이 19명(14.1%), 그리고 30대 초반도 1명(.7%)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이 16명(11.9%), 3학년이 35명(25.9%), 4학년이 84명(62.2%)순으로 나타나 4학년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설문 에 참여한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빈도	%
남자	71	52.6
여자	64	47.4
연령	빈도	%
20대 초반	65	48.1
20대 중반	50	37.0
20대 후반	19	14.1
30대 초반	1	.7
학년	빈도	%
2학년	16	11.9
3학년	35	25.9
4학년	84	62.2
합계	135	100.0

4.2 기초통계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 분석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외재론자와 내재론자는 -0.359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외재론자와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그리고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과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등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외재론자와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 및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과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4>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

	M	SD	외재론	내재론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외재론	2.24	0.52	1	-0.359**	-0.237**	0.170*	0.221*
내재론	3.91	0.56	-0.359**	1	0.346**	-0.069	-0.124
합리적	3.69	0.59	-0.237**	0.346**	1	-0.273**	0.000
직관적	3.31	0.64	0.170	-0.069	-0.273**	1	0.212*
의존적	2.60	0.63	0.221	-0.124	0.000	0.212*	1

* = p<0.05, ** = p <0.01

4.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Cronbach's α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 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Cronbach's α값은 Nunnally(1967)가 제안한 신뢰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문항으로 측정한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척도별로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확인적 요인분석 등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척도순화를 진행하였다.

순화과정은 개별 측정척도를 단일 차원성을 전제로 측정척도를 검토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유 값이 1 이상이 되는 변수의 파악, 요인적재치가 0.40이상이 되는 항목 포함 및 공통분이 0.5이하인 항목은 제거하여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항목-전체 상관관계에서 0.3이하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항목은 요인분석의 요인 적재치와 공유치를 비교한 다음 제거를 결정하였다.

<Table 5>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개념	요인	문항 번호	요인분석결과				Cronbach's α
			적재 값	고유 값	분산 (%)	누적 분산 (%)	
통제론적 성격 유형	내재론자	내재4	.807	2.235	44.71	44.71	.788
		내재5	.714				
		내재1	.706				
		내재3	.602				
	외재론자	외재2	.767	1.522	38.01	82.72	
		외재3	.628				
		외재1	.524				
		외재4	.514				
진로 의사결정 유형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	합리적5	.800	4.041	18.06	18.06	.838
		합리적7	.786				
		합리적8	.785				
		합리적4	.745				
		합리적1	.639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직관적9	.777	4.211	14.47	32.53	
		직관적10	.730				
		직관적8	.707				
		직관적7	.639				
		직관적6	.555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	의존적8	.764	3.919	11.13	43.67	
		의존적3	.752				
		의존적10	.749				
		의존적9	.723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	의존적2	.613	3.919	11.13	43.67	.840	
	의존적6	.587					
	의존적4	.584					
	의존적1	.584					

4.3.1 신뢰성 분석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Nunnally(1967)는 신뢰성 검증이 타당성 검증에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척도의 신뢰성(Reliability) 평가는 내적일관성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내적 일관성은 한 구성개념을 다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항목들이 일관성 혹은 동질성을 갖는가에 관한 것이다.

내적일관성의 평가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에 대해서 Nunnally(1978)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0.60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 연구분야에서는 0.80 이상,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 연구 분야에서는 0.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관측변수들의 전체문항과 각 측정변수별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재론적 성격유형이 .693으로 0.70이하로 나타나고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0.693~0.840의 신뢰도를 보여 내적일관성이 있는 척도라고 판단하였다.

4.3.2 타당성 분석

타당성은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내용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하는 개념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내용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설문항목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보완하였으며, 인사조직 전공교수 1인, 인사조직 전공 경영학 박사 2인을 통해 설문문항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판별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주는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과 공통요인 분석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최소의 요인으로 묶이게 하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다.

요인회전 방법은 하나의 요인에 높이 적재되는 변수의 수를 줄여서 요인의 해석에 중점을 두는 베리맥스 방법(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요인의 축들이 직각을 유지하면서 요인을 추출하므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0이 되어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치가 0.40이상인 변수, 아이겐 값이 1이상인 변수와 공통분(Communality)이 0.5이상인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재치 기준에 못 미치거나, 공통분이 0.5이하이고 아이겐 값이 1이 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하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재론적 성격유형은 전체 5문항에서 1개 문항이 제거되고, 진로의사결정유형에서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이 10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은 10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은 10개 문항중 5개 문항의 변수가 제거되었다.

전체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5>과 같다.

4.4. 가설의 검증

H1-1. 대학생의 통제위치가 내재적일수록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보일 것이다.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성격유형의 검증을 위하여 외재론적 성격유형과 내재론적 성격유형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재론적 성

격유형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B값이 .316으로 나타났으며, 외재론적 성격유형은 B값이 -0.148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재론적 성격유형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이므로(t=3.448) 가설 1을 채택할 수 있다.

<Table 6> 성격유형과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상수)	2.787	0.487		5.727
	외재론자	-0.148	0.099	-0.130	-1.498
	내재론자	0.316	0.092	0.299	3.448***
R2=.366, Adj R2=.134, F=10.238***					

*=p<.05, **=p<.01, ***=p<.001

H1-2. 대학생의 통제위치가 외재적일수록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보일 것이다.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성격유형의 검증을 위하여 외재론적 성격유형과 내재론적 성격유형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재론적 성격유형이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B값이 .216으로 나타났으며 내재론적 성격유형은 B값이 -0.010으로 나타나 외재론적 성격유형이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t=1.960) 가설 2를 채택할 수 있다.

<Table 7> 성격유형과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상수)	2.885	0.559		5.163
	외재론자	0.216	0.103	0.177	1.960*
	내재론자	-0.010	0.105	-0.009	-0.100
R2=.129, Adj R2=.079, F=4.065**					

*=p<.05, **=p<.01, ***=p<.001

H1-3. 대학생의 통제위치가 외재적일수록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보일 것이다.

<Table 8> 성격유형과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상수)	2.276	0.547		4.162
	외재론자	0.247	0.111	0.202	2.227*
	내재론자	-0.059	0.103	-0.052	-0.570
R2=.051, Adj R2=.037, F=3.555**					

*=p<.05, **=p<.01, ***=p<.001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성격 유형의 검증은 위하여 외재론적 성격 유형과 내재론적 성격 유형을 독립 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재론적 성격 유형이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B값이 .247으로 나타났으며 내재론적 성격 유형은 B값이 -0.059로 나타나 외재론적 성격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t=2.227$) 가설 3을 채택할 수 있다.

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5.1.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통제위치 성격 유형이 그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모형에서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로는 통제위치 성격 유형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설정하여 연구에 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증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1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의 통제위치 성격 유형 중 대학생 내재론자들은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통제위치 성격 유형 중 외재론자들은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의 통제위치 성격 유형 중 외재론자들은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개인이 실제로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관심은 중심적인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 변인을 통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에 임하여 검증했는데 그 논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1.2 시사점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적인 역할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는 성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 선택과 결정에서 요구하는 성격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즉 개인의 심리적 정체성의 확립과 성격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교육은 대학생 개인의 내면적인 성숙의 장(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성격 특성(내재적, 외재적)에 맞는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어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개인의 성격은 자신이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업 생활을 하는 조직이나 직무 특성과 개인이 상호 작용하는 패턴에 따라 조직의 성과나 개인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여러 부정적인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격 특성들이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왔다. 통제 위치에 관련된 성격 모형은 심리학자들로부터 개인의 성격 특성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포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구조로 인정받아왔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통제위치 성격 유형의 요인 구조상의 적절성이나 타당도에 관한 논란이 있기는 하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오히려 활용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대면하듯 본 연구를 통해 심리학적 접근과 특히 대학생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성격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이 보다 비전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취업 현실에서도 대학생들이 본인 스스로가 미래 지향적이고 전향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학교육과 체계적인 진로 상담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방법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 과정에서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복잡하고 다채로운 현실에서 조직 생활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문화를 수용할 줄 아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성격 유형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진로 의사결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진로 행동에서 다른 직종으로의 급속한 이직을 생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적절한 성격유형의 적용은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성격특성을 알아야 진로에 대한 결정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원하는 진로의사에 대한 결정 위해서는 개인이 형성하는 개인별 성격특성을 확실히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에서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그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사회로의 진출 결과로 귀결될 때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가 아니라 대학의 교육목표 중 일부가 될 수 있는 대학생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성격유형과 진로는 상호의존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1.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방법이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관적인 자기기입(self-reporting)에 의한 설문자료로서 주관적인 평가치가 응답자의 실질적인 지각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즉, 실험실 연구에서와 같은 적절한 통제 상황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던 기타 다수의 상황변수들에 의해 실증분석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의 병행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표본선정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연구의 제반 환경적 여건상, 표본선정에 있어 무선표집을 사용하지 않고, 편의표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직업, 성별 등에 있어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시키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사 집단에 맞게 정제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척도 사이의 언어적 동일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통제위치와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특유의 측면을 반영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은 교육의 목표를 일부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통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진로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대학생의 진로를 관찰함에 있어서 대학생의 성격유형 이외에도 의사소통유형, 학업성취도, 사회적 유대감, 자기효능감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접근되길 바란다.

6. 참고 문헌

- [1] Koh, H.J(1992), "(A)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dissertation.
- [2] Kim, K-H, and Son, J-H, and Kim, S-K(1995), "Seoul National University, 4th grade students career planning", Student Life Research, Vol.30(1), pp.64-80.
- [3] Kim, B.H(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4] Kim, S.N(2005), "(The)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social support of junior college students."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5] Park, S-G, and Lee, Y-H(2002), " A study on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1, pp.141-160.
- [6] Shin, S.R(1999), "Relation of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decision making style to ego identity on the university student.". Kei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7] Lee, S.H(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Ph.D. dissertation.
- [8] Yoo, J.S(2004), "(The)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9] Lee, K-H, and Lee, H-J(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2, pp.127-136.
- [10] Lee, J.C(1986), "A study of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with emphasis on systematic counseling model and decision-making model. Hong Ik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Study, 2, 67-90. Hong Ik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Study.
- [11] Lee, J.K(1997), "(A) Comparative study of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velopment among college major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12] Chang, D,W(1986), "A preliminary study of a major-adjust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ith major-aptitude discrepancy." Chonbuk University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14.
- [13] Chung, C.K(1991), "The effect of self-concept, ego-identity,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on career decision making."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dissertation.
- [14] Hong, K.O(199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cretarial job characteristic upon job satisfaction of secretaries in Korea."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dissertation.
- [15] Anderson, C. A(1977), "Locus of Control, Coping Behavior, and Performance in a Stress Sett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62, No.4, pp.446-451.
- [16] Andrisani, P. J., & Nestel. G(1976), "Internal-External Control as Contributor to and Outcome of Work Experi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61, no.2, p.156.
- [17] Arroba, T(1978). "Decision-making style as a function of occupational group, decision content,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51, pp.21-226.
- [18] Brice, D. J and Sassenrath, J. M(1978), "Effects of LOC, Task Instruction, and Belief on Expectancy of Success," Journal of Psychology, Vol.104. p.97.
- [19] Burnham, C. R(1968), "A new Method of Using Interchange as Chromosome Markers." Crop Science 8 : pp.357-360.
- [20] Chartrand, J. M, & Camp, C. C(1991), "Advances in the measurement of career development constructs : A 20year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9, pp.1-39.
- [21] Collins, B. E(1974), "Four Components of the Rotter Internal-External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9, No.3, pp.381-391.
- [22] Cook, D. E., & Harren, V. A(1979), Relationships among decision making styles and career related variables. Paper presents as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New York.
- [23] Daniels, M. H(1982), The heuristic value of Harren's career decision-making model for practical,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Vol.23.
- [24] Dinklage, L. B(1968), Decis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25] Dohert, W. J., & Baldwin, C(1985), "Shifts and Stability in Locus of Control during the 1970's: Divergence of Sex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Vol.48, No.4, pp.1048-1053.
- [26] Gelat, H. B(1962), "Decision making :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9, pp.240-255.
- [27] Gordon, V.N(1981), The Undecided Student : A Development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 [28] Greenhaus, J. H., & Sklarew, N. D(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search pro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68, pp.632-640.
- [29] Hammer, W. C and Organ, D. W(1978), Organizational Behavior : An Applied Psychological Approach(Dallas, Texas : Business Publication Inc., p.180.
- [30] Harren, V. H(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 pp.119-133.
- [31] Harren, V. H(1984), Assessment of career

- decision making. Los Angeles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32] Harren, V. A., Kass, R. A., Tinsley, H. A., & Moreland, J. R.(1978), "Influence of sex role attributes and cognitive styles o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25, pp.390-398.
- [33] Janis, I. L., & Mann, L.(1977), *Decision making a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choice and commitment*. New York : The Free Press.
- [34] Jepsen & Dilly. 1974 : Michell & Krumboltz, 1984/ Jepsen, D. A., & Diley, I. S. Vocational Decision Making Model : "A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44, pp. 331-349. 1974/Michell, L. K., & Krumboltz, J. D.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 Implication for Career Decision Making and Counselling*. In S. D. Brown & R. W. Lent. *Handbook of Counselling Psychology*. N.Y. : Wiley
- [35] Joe, V. C.(1971), "Review of the Internal-External Control Construct as Personality Variable," *Psychological Reports*, Vol.28, p.619.
- [36] Julian, J. W and Katz, B.(1968),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and Value of Reinfor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 pp.89-91.
- [37] Krumbolts, J. D.(1989), *The Effect of Alternative Career Decision Making Strategies On the Quality of Resulting Decision*.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 [38] Krumboltz, J. D. & Hamel, D. A. M., & Jones, G. B.(1977), *Guide to career decision-making skill*. New York :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39] Lefcourt, H. M.(1966),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65. No.4. p.206.
- [40] Lent, R. W., Brown, S. D., & Hackett(1996), G. *Career development from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D. Brown, L. Brroks, & Associate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pp.373-421).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 [41] Levenson, H(1976), "Activism and Powerful Others: Distinctions within the Concept of Internal-Extern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38, pp.377-383.
- [42] Levenson, H(1981), "Differentiation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ge", In Lefcourt ed.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Vol.1, pp.15-66. 1981.
- [43] Miller, C. H(1974), *Career development theory in perspective*, In E. L. Herr(Ed.), *vocational guidance and human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 [44] Nassi, A. J and Ambamowitz, S. J(1980), "Discriminant Validity of Mirels' Personal and Political Factors on Rotter's I-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4. No.4. p.363.
- [45] Nunnally, J. C.(1967).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 Hill.
- [46] Pandy, J., & Ram. N(1978), "Change in Locus of Control of Upper and Lower Caste Stud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04, pp.297-298.
- [47] Payne, G. C(1982), *The role of coping behavior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young adults : career adjustment,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job see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48] Phillips, S. D., & Paziienza, N. J(1988), *History and theory of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B. & S.H. Osipow, (Eds), *career decision making* (pp.1-31) Hillsdale, NJ: Erlbaum.
- [49] Roth, S and Bootzin, R(1974), "Effects of Experimentally Induced Expectancies of Extern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9, No.2. p.253.
- [50]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Vol.80, No.1, p.1.
- [51] Rotter, J. B and Mulry, R. C(1965), "Internal Versus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Decision Tim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28, pp.176-180.
- [52] Sampson, G(1989), "Language Acquisition : Growth or Learning," *Philosophical Papers*, Vol.18. pp.203-240.
- [53] Srull, T. K and Karabenick, S. A(1975), "Effects of Personality and Situational Locus of Control Congr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0, No.4. p.618.
- [54] Tiedeman, D. A., & O' Hara, R. P(1963), *Career Development :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55] Tolbert, E. 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56] Zunker, V. G(1980), Career Counsel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California: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저자 소개

이길환



충북대학교 경영학박사, 충북대, 서원대, 홍대, 목원대 강사. 사이버평생교육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 인사/조직, 전략, 노사관계, 조직행동, 리더십

주소 :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서정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관심분야 : 인사/조직

주소: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이일우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취득.
현재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 리더십, 조직문화, 조직양면성, 경쟁가치모형 등

주소: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경영학과